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용택 시인

새벽입니다. 늦게 자도 일찍 자도 나는 늘 이 시간 부근에서 눈이 떠집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잠은 이런 자연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나는 손으로 어둠을 만져 봅니다. 어둠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맑아집니다. 내가, 내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물대 깜짝 놀라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작개심'. 이 말이 왜 이때 불쑥 솟아났는지, 느닷없이 이 말이 불리일키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역사 속의 기억과 상처들이,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 내 짧은 삶의 흔적들이 함께 섞이며 소용돌이가 되었습니 다.

겁이 났습니다. 나도 이 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저지 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작개심으로 일어났던, 일어나고 있는, 일어날 일들이 생각나,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 금방 내가 가만해졌습니 다. 현오, 증오, 작개심, 이런 삶의 끝에 다다른 막말들이 내 일상을 포위하고 있습니

눈물이 사는 살구나무 언덕

다. 때로 나는 '이 나라'가 싫어질 때가 다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도 떠나지 못하고 사는 내가 우리나라를 두고 '이 나라'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니, 내가 싫어지고, 싫어지고, 정말 싫어집니다.

선하고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사라진 자리에 적개심과 적대적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을 살벌하게 지배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와 모면으로 교육된 우리들이 자제와 표정에서는 정의도, 평화도, 포근한 공정과 아름다운 자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우리나라를 '이 나라'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게 인생 아니라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따금 정의로운 바람을 맞이하러 사람이 살지 않은 우리 동네 서쪽 밤나무 숲으로 갑니다. 영혼이 사라져 버린 말들이 삭풍이 되어 밤나무 숲을 흔들어 지나 갑니다. 나는 괴롭지요. 슬퍼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고받아야 할 말을 버린 저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싫어 집니다. 직업으로 삶의 비교우위를 가려가며 이렇게나 차디찬 돌맹이들처럼 돌아서서 무심한 얼굴로 살아가 다니, 내가 싫습니 다. 말 같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 '행복한 불행'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인간 위에 군림하며 인간의 얼굴을 선명하게 조형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다한 누추하고 낡은 정치가 그에 기대어 판을 만들고 부추기며 우리의 정신을 곤혹스럽게 합니

다. 부러움은 존경도 사랑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잘 못산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한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는 인간적인 가난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 다. 그분들의 흥은 마을과 흥이 융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잘못입니다. 누가 크게 잘 한 영웅적인 일도 기억에 없습니 다. 그분들은 늘 끝까지 두 손 마주 잡고 웃습니 다.

나라가 왜 읊습니 까. 사람들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모여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은 달콤한 인문적인 위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나라의 일이듯이요. 나라의 일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골 마을에 사는 시인은 이 새벽, 미안하게도 찬란한 봄날이 괴롭습니 다. 아이들이 싸우면 동네 어른들은 "باء뉘라, 아이들은 싸워야 크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듯이 드러나 싸우게 되지요. 싸워야 하지요. 싸우면서 내 잘못이 확실해지면 고치고 바꾸고 서로 맞추어 새로워지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혁신이란 끝이 없는 착오들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정치지요. 사람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지금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며 어떻게 살자는 것인지요. 나는 순진하게도, 바람이 불고 흰 구름 동동 떠가는 평화의 언덕 작은 마을 그 어디쯤, 눈물이 사는 어린 살구나무 곁에 누워 있습니다.내가 심은 이 살 구나무는 새로운 봄을 만나 저러나 곁게 화려한 꽃을 피우며 한 치도 어김 없는 새 아침을 가져왔네요

社說

'호남 싸늘이' 민주당 의원 앞에 산적한 과제

제22대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여야의 심판론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권에 엄청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18석과 전북 10석 등 지역구 28석 모두를 싸늘이 해 이번에도 텃밭임을 입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전국 평균 득표율의 두배가 넘는 40~47%의 지지를 보내 '정권 심판'이란 전략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호남을 싸늘이 한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크게 두가지인데 우선 호남정치를 복원해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국회는 대선 의원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광주·전남 초선 비율이 61%나 돼 주요 상임위 등 지도부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의원 개별 활동보다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에 대해 힘을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형 현

안에선 박지원(5선), 이기호(4선), 신정훈·서삼석(3선) 등 대선 의원이 다수 있어 중진과 초선간 균형을 통해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지 않다.

두번째는 입법을 통해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 소멸을 막을 강력한 균형발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과제다. 이밖에 광주는 AI 육성법 제정과 달빛철도 조기 건설, 전남은 국립 의대 신설, 이민정 설립, 우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을 성사시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답해야 한다.

당장 국립 의대 신설을 두고 폭포와 순천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국회의원들이 지역이 주의의를 버리고 전남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되 시간을 갖고 산적한 과제 해결을 고민해 보길 바

종교칼럼

차별과 평등 사이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 소중함을 저침하게 짓밟아버린다. 평등하게 대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일까? 아니면 차별적으로 대하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삼연호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주민들은 함께 살고 있고 이웃이 되고 있고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7년 가까운 시간을 남미 칠레에서 선교사로 살았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식까지도 달랐던 그곳에서 내가 받아들였던 기억이 떠오른다.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 중국인이라 놀림을 받으며 차별받고 굶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다. 그래도 칠레 빈민가의 형제들을 존중과 배려로 대했고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지내려고 했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무렵, 빈민가 성당의 친구들이 준비한 환송식 때였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신부님! 우리 성당 신부님은 한국 신부님, 당신입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안아주었다. 최고의 찬사였고 아직도 온몸과 마음에 울리고 있는 사랑의 메시 지였다.

필자가 칠레에서 특별히 무엇을 잘해 이런 찬사를 들 었던 것은 아니다.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부 동켜안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웃으로 옆에 함께 해주었던 나를 칠레 빈민가의 친구들은 다시 나를 이웃이요 형제로 동등하게 대해 주었다. 빈민가 친구들이 바로 나였고, 내가 바로 빈민가의 친구였었다. 다르지만 평등의 시각을 가지고 대

하는 것은 단했던 문을 열어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다름이 차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었다.

우리가 차별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평등의 입장이 되는 게 왜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평등하게 대하면 나의 어떤 것을 빼앗긴다 생각하는 것인지 차별로 자신이 더 우위를 차지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에 두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 차별적 시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평등한 시각은 현재를 움직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차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평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에 함께 살아가려 하고 미래를 구현해나가기 때문이다. 평등의 관계가 옳다고 모두 말하지만, 차별의 시각을 쉽게 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평등하지 못하게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차별과 평등 사이에 어떤 인간의 내면 작용이 벌어지는 것일까?

성경은 시종일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차별을 통한 착취와 폭력은 언제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 배타적 시각을 경고하기도 한다. 차별과 평등 사이에 도사리는 인간 내면의 작용은 바로 무관심이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며, 공동선을 파괴하는 이기심이다. 그리고 장희함을 잇는 끝없는 탐욕이며, 갈라치고 편을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철저한 탐욕적 경쟁, 폭력이 아 날까 생각해보는

눈앞에 다가온 초·중·고교 학령 인구 '절벽'

지속적인 출생인구 급감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029년이면 올해보다 6만여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4년-2029년)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16만2508명으로 오는 2029년에는 2만9423명 줄어든 13만 3085명으로 추산됐다. 전남지역 학생 수도 올해 17만5335명에서 2029년 14만 3670명으로 3만166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초등 1학년은 올해 1만720명에서 2025년 9760명으로 1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초등학 교 1학년 역시 현재 1만1218명에서 2026년 9522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 학생 수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개교(초 18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에 이른다.

문제는 초등학생 수 감소가 교원임용 축소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24년 광주교대의 졸업생 314명 가운데 157명이 임용고시를 통과해 합격률이 50%에 그쳤다. 학교별로 보면 10개 교대의 합격률은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교대 52.58% 순이었다. 광주·전남 6개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591명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자칫 인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의식을 갖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고

별을 보는 아이들



정용석 광주 어린이전문대 대장

래 살아야겠네"라며 신기해 했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천문학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의 미스터리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분야로서, 그 중심에는 지구 밖의 우주와 별들에 대한 열정이 있다. 천문대에서 이러한 열정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며 보람을 느끼게 한다.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첫째,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신비로움을 탐구하고 천문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별자리, 행성, 은하, 우주의 구조 등에 대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과학적 사고와 탐구 정신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천문대에서 제공되는 체험은 학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준다. 우주의 거대함과 별들의 아름다움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자극한다.

천문학은 이론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므로 천문대에서 제공되는 별자리 관측, 행성 탐구, 천체 망원경으로의 관측 등은 학생들

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셋째, 천문대는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연구와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천문학적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천체 망원경을 활용하여 별,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과학적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천문대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와 협업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천문학은 보통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천문대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천문대 대장으로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그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천문학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고 그들을 미래의 과학자들로 육성할 수 있다면 보람도 더 커질 것이다.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의 밤하늘에 별들은 늘 누구에게나 호기심의 대상이자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한다. 별 보기가 쉽지 않은 도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다.

해가 진 뒤 서쪽 하늘, 며칠 전 71년 만에 찾아온 태양계 식구 '12P/폰스-브룩스 혜성'을 광주 어린이전문대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다. 이 혜성이 높은 고도일 때는 날씨가 좋지 못해 볼 수 없었지만 차갑고 깨끗한 북풍이 부는 날이었기에 볼 수 있었는데 고도가 낮은 탓에 혜성의 꼬리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난생 처음 혜성을 본 아이들 중 한 학생은 "이 혜성을 다시 보려면 80세 이상 할머니가 될때 까지 오

無等鼓

역사적으로 오만한 권력자나 집단이 몰락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한 나라를 지배했다기도 한 순간에 권력을 잃은 지도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돈을 거머쥔 듯 부를 축적했다가도 속절없이 무너진 기업은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오만한 추락한다'는 진리와 같은 경고는 각종 신화나 전설, 심지어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전제되고 있다. 오만한 인간이 신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이야기는 무수하지만 힘을 가진 인간이 주제 넘는 행동을 했

오만의 추락

에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사는 천궁인 올림포스까지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제우스가 등

폰은 천마인 페가수스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활로 쏘아 죽였다. 벨레로폰은 키메라를 퇴치한 후 계속되는 이오바테스의 요청으로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는데, 모두 페가수스의 덕분으로 성공을 거둔다. 애초 벨레로폰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 죽이려했던 이오바테스 왕은 그가 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다. 벨레로폰은 이처럼 영웅 대접을 받자 오만이 도를 넘어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급기야 기고만장해진 끝에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사는 천궁인 올림포스까지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제우스가 등

에(곤충) 한 마리를 보내 페가수스를 찌르게 하자 벨레로폰은 땅에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고 눈까지 멀게 된다.

제22대 4·10 총선이 끝났다. 새롭게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국회의원 은 국민의 대리자이다.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국민의 마음을 가져왔던 초심을 명심하고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채희중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